

연예뉴스 스테이션

데이·JK 김동욱 '오페라스타' 결승 진출

데이와 JK 김동욱이 tvN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페라스타'의 결승에 진출했다. 데이는 30일 밤 11시 서울 삼명아트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페라스타'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 '의상을 입어라'를 불러 시청자 문자투표 점유율 46%를 차지하며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이탈리아 가곡 '위대한 사랑'을 부른 JK 김동욱은 "표현력이 돋보인다"는 심사위원들의 찬사 속에 2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반면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를 부른 임정희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레퀴엠' 중 '자비로운 예수님'을 부른 문희옥은 탈락했다. 7일 열리는 '오페라스타' 결승전은 데이·JK 김동욱의 '남남(男男) 대결'로 펼쳐지게 됐다.

2AM 필리핀 프로모션...내달 중순까지 쇼 순회



남성그룹 2AM(사진)이 4월27일부터 나흘간 필리핀에서 프로모션을 벌였다. 2AM은 4월27일 필리핀 지상파 유명 음악프로그램 'MYX'에 출연해 약 1시간 동안 특별 무대를 벌이며 사전녹화를 진행했다. 그동안 'MYX'에는 레이디 가가, 머라이어 캐리, 니오 등과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한 바 있다. 필리핀 프로모션을 다녀온 2AM은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프로모션과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머라이어 캐리, 결혼기념일에 이란산 쌍둥이 출산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41)가 4월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딸과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몸무게 2.35kg의 딸과 2.44kg의 아들을 차례로 낳았으며, 아이들의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날은 머라이어 캐리와 닉 캐논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이었었다. 머라이어 캐리는 2008년 신작 뮤직비디오를 작업하다 만난 것으로 알려진 10세 연하의 흑인 배우이자 래퍼인 닉 캐논과 결혼했다.

정인, 내달 3·4일 솔로 데뷔 이후 첫 콘서트

최근 두 번째 앨범 '멜로디 레메디'를 발표한 가수 정인이 6월 3, 4일 이틀간 서울 대학동 영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정인 여름 소극장 공연-장마'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벌인다. 이번 공연에서 정인은 '사랑은 '미우요' '장마' 등 자신의 히트곡과 지플라(G.Fla) 밴드 시절 보여주었던 평기한 노래들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 가수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마련했다.



소시, 日 MTV 시상식 3관왕 쓸까

여성그룹 소녀시대(사진)가 올해 열리는 일본 MTV 시상식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2011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저팬'(이하 VMAJ 2011) 주최측이 1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시상부문별 후보에서 소녀시대는 '지' 뮤직비디오로 '올해의 비디오'와 '베스트 그룹 비디오', '베스트 가라오케 송' 등 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시상식의 가장 핵심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올해의 비디오' 부문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소녀시대는 '올해의 비디오' 부문에서 아무로 나미에, 우타다 히카루,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등 일본과 미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스타들과 경쟁하게 된다. 수상 가능성과는 별도로 일본 데뷔 10개월만에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소녀시대가 신인상을 넘어 대상 후보에 오를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6월25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멧세 마쿠하리 이벤트 홀에서 열리는 VMAJ2011에는 팝스타 레이디가가 출연한다. 김원경 기자

영화 랭킹

4월 24일~4월 30일.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분노의 질주: 연리미트	538,217	867,120	04/20
2	토르: 천둥의 신	407,366	407,366	04/28
3	수상한 고객들	285,631	905,217	04/14
4	위험한 상견례	254,828	2,324,726	03/31
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34,857	236,564	04/20
6	적과의 동침	112,243	123,055	04/27
7	제인 에어	58,127	110,801	04/21
8	노미오와 줄리엣	38,265	160,033	04/14
9	체포왕	36,165	38,921	05/04
10	씨니	33,676	35,828	05/04



“경찰 취재만 18년  
이젠 한식구 같죠”

배우 그리고 아빠... '체포왕'

박·중·훈

영화 '체포왕'에서 또 경찰 역할을 맡은 박중훈. 그는 그동안 경찰을 연기한 것이 벌써 6번째이다.

김원경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41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번이 형사 역만 여섯 번째다. 여기에 건달이나 조폭 등을 합하면 그의 필모그래피 중 약 20%가량은 범죄가 소재가 되는 작품이다. 스크린서 형사를 연기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취재하는 것도 이젠 익숙한 일이 됐다. 1993년 '투캅스' 이후 7편에 한 편 꼴로 맡은 형사 캐릭터 덕분이다.

“경찰 취재만 18년이다. 정말 (경찰관들이)이젠 식구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작품마다 캐릭터의 색깔은 다르기 마련. “형사와 강패의, 코미디와 액션을 오가고 있다”고 말하는 배우 박중훈이나 관객에게 그 다른 색깔은 또 명징하게 남아 있다.

박중훈이 여섯 번째 형사 역으로 나선 무대는 4일 개봉하는 영화 '체포왕'(감독 임찬상·제작 씨네2000). 서울 서대문서와 마포서에서 일하는 두 형사가 범인 검거 실적에 올리기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해프닝과 액션을 코미디로 버무린 작품이다. 박중훈은 노련한 형사 역할을 맡아 이선균과 경쟁을 벌인다.

●관록과 노련미, 그리고 프로

배우에게 '경쟁'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때론 상대 배우와 연기를 두고, 또 때론 다른 작품과 흥행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렇다면 박중훈과 같은 노련한 프로페셔널은 작품의 흥행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할까.

출연작 중 형사·건달 역할이 20% 이하...  
성폭행범 응징에 여성관객들 응원 큰 힘  
막내딸 감쪽 출연, 아빠와의 추억 선물했죠

“충무로에서 내공을 지닌 배우들치고 스크린 속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하는 그는 다른 이들이 자기 영화를 보고 건네는 인사로 작품을 평가하곤 한다.

“남들이 '이거 대박감인데', 혹은 '대박나세요'라고 말하면 대중감이 온다.”

'이거 대박감인데'라는 말은 그 만큼 흥행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대박나세요'는 정말 '대박'을 기원하는 마음이란 뜻이다. “그 말의 60~70%만 들으면 된다. 그게 팩트”라고 말하는 박중훈에게 '체포왕'은 그런 전망과 희망이 섞인 작품이다.

그는 연예계의 '파워 트위터러'이다. 요즘 자신의 트위터로 전해오는 특히 많은 여성 관객들의 응원에 힘을 얻고 있다. “영화 속 성폭행범에 대한 응징에 여성 관객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응의 농도는 '강패 같은 애인'이나 '게임의 법칙',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작품이 절었고, '투캅스' 등도 호응의 파위가 꽤 컸다”고 돌아보는 박중훈의 얼굴은 자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편집 | 양혜진 기자 yjh@donga.com 트위터 @yjh

감쪽·발랄 '치치'... “우린 음악으로 승부해요”

'장난치치마' 멜로디·가사 쉬워 귀에 쏙쏙

“왜 나를 갖고 장난쳐/나를 갖고 장난쳐 싫어/정말 싫어.” 한번만 듣고도 쉽게 멜로디와 가사를 흥얼거릴 수 있는 이 구절은 3월 말 데뷔한 '신상' 걸그룹 치치(나라 지유 피치 이지 세미 보름 수이)의 데뷔곡 '장난치치마'의 후렴구다.

치치는 평균나이 19.4세의 '소녀'그룹이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라니아, 브레이브걸스가 색다른 의상과 춤, 강렬한 퍼포먼스를 강조해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감쪽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어필하는 그들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하다. 그러나 치치는 “우리의 강력한 차별화는 음악”이라며 “음악으로 승부를 겨는 그룹”이라고 강조한다.

“요즘 걸그룹 음악은 어른들이 듣기 어려워한다. 우리 노래는 쉬워서 어른들도 후렴구를 많이 따라 하신다. 그룹 이름은 잘 몰라도 노래는 쉽게 기억해주시더라.”

치치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7명이 모여 지난 1년간 하루

도 빠짐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꼬박 12시간씩 연습을 해왔다. 양배추 등 채소를 주식으로 1년간 혹독한 다이어트도 했다. 휴대전화도 2월 말 속소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두 내놓았다. 문득문득 자신들이 처량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기도 했지만, 치치는 이런 인고의 날들을 거친 덕분에 데뷔무대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다”는 자부심과 “우리는 최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치치(Chi Chi)란 팀 이름은 ‘전자음악을 하는 아이돌’(Creative Electronic House Idol)이라는 뜻으로 ‘신선하면서도 세련된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타이틀곡 '장난치치마'는 클럽하우스의 강한 비트와 아날로그 감성의 전자악기 사운드를 과감하게 믹스매치 한 노래다.

인터뷰 끝에 '치치는 가요계의 ○○○'이라는 명제를 주며, 빈 칸을 채워보라고 하자, 멤버 지유는 주저 없이 “신선한 바람”이라고 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 @ziodadi



3월 데뷔한 7인조 신인 걸 그룹 치치는 '국민 걸 그룹'으로 불리는 것이 소망이다. 임진환 기자 photoim@donga.com 트위터 @binyfala

조영남 등 스타 배출...70년대 청년문화의 상징 추억속으로

스타, 그때의 오늘 1969년 '세시봉' 문다

가수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요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그들의 위상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 바로 '세시봉 친구들'이다.

그들의 활약했던 무대, 서울 서린동의 음악감상실 세시봉이 1969년 오늘, 문을 닫았다. 개관 17주년을 불과 23일 앞둔 날 아침이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이씨 아저씨'로 불린 주인 이흥원 씨는 1968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됐지만 새롭게 문을 열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 감상실 문을 닫았다.

세시봉은 르네상스 등 당시 대부분의 음악감상실이 클래식을 주로 다루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중가요를 전문적으로 틀어주던 공간이었다. 1963년 이 씨가 인수한 뒤 종종 YMCA 건물 뒤편과 소공동을 거

쳐 서린동(현 SK건물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 중후반 동아방송 인기 DJ 최동욱과 '쇼 쇼쇼'의 조용호 PD 등이 이곳에서 DJ로 활약했다. 당시 TBC 라디오 이백천(가요평론가) PD와 한국일보 정홍택(현 한국영상자료원장) 기자는 '대학생의 밤'이나 신보에 대해 관객들이 평가해 점수를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흥대 미대생 이상벽(방송인)도 아르바이트 삼아 무대에 나서 임신을 자랑했다. 서정주, 박두진, 조병화, 김수영 등 문인들과 훗날 영화감독이 되는 이장호 등 유명 인사들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곳을 찾았다 한다.

세시봉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음악감상실의 틀에서 벗어나 당대 젊은이들의 문화가 소통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적 포크음악의 실마리를 마련하며 젊은이들을 사로잡았고 이는 1970년대 청년문화의 한 출발점이 됐다. 윤여수 기자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2010-2964호(2010.8.12)

시망보장은 기본, 실손의료비에 연금전환도 가능합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왜 많은 분들이 교보다이렉트 종신보험을 선택했을까요?

무배당 교보다이렉트 유니버설종신보험II

교보실손의료보험은 3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80-399-0099 KYOBO 교보생명